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2, 2009. 5, pp. 189-21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엄 태 완
(경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탈북과정에서 고문, 공포, 폭행, 기아, 질병 등의 외상을 경험한 7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었다. 연구결과, 6개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몸부림', '살아남음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로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남한이주 과정에서의 외상은 수년이 지난 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남은 과정에서 각인된 이미지와 기억은 수 년 동안 지속되어 남한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 특성이라고 간주되었던 일부 요인들이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개별적 특수성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외상, 현상학적 방법

1. 서 론

남한에 정착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매해 1천에서 2천 명 정도로 증가하여 현재에는 1만 5000여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08년 11월).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남한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제집단'이나 '문젯거리'로 일차적 개념 규정을 하는 경향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2-B00288)". 꼼꼼하게 읽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인다. 따라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실천방법과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통일 이후 남북주민의 통합에 관한 심층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인류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아・전명남, 2003; 김혜숙, 2000; 이금순 외, 2005; 이기영, 2003; 조영아 외, 2005; 조정아 외, 2006).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자 중심의 접근을 지향하여 그들의 존재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세계로부터 분리하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삶, 탈북과정, 남한 정착과정에서 끊임없는 위기적 사건들(crisis events)을 경험한 남한주민들과 차이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다른 난민이나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Ben-David and Lavee, 1994; Chung, 2001; Egli et al., 1991; Potocky-Tripodi, 2002), 북한탈주민들도 남한 입국 이전에 중국 등의 제 3국에서 수년 동안 충격적인 외상(trauma)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우택, 2004; 정병호 외, 2006; 엄태완, 2005; 홍창형,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외상의 확인이나 그 결과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련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자 중심의 실태 또는 결과요인들의 확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을 상대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독특한 외상 경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북한이탈주민들은 외상이라는 독특한 개인적 위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들의 내적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즉 개인의 맥락에 따른 주관적 틀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 사건을 올바르게 의미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사건을 '조작적 정의(operation definition)'의 객관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가지는 주관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험한 외상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 논리 실증주의에 의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수학적 자료처리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경험의 의미가 남한의 일상적 세계와 관련 지워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질적 연구방법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외상을 그들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험하는 충격적 외상의 이해만으로 이들의 경험적 독특성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의 노출은 독특하고 다양한 대처양식이 나타나고 이는 일상적 생활과도 관련을 가지게 된다(Schiraldi, 2000).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러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단지 적응에 문제가 있음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경험을 정신건강과 같은 병리적 차원으로만 한정한다면 일상생활 세계와의 어떠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체험 속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경험을 중시하여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자연적 태도만이 그들의 외상적 체험과 관련된 행위의 의도나 동기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이라고 하는 현상(phenomena)에 주목하게 된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클라이언트를 병리적이고 단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체적(holistic)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환경과 상호동반자 관계로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사건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새로운 사회문화를 가진 환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위기를 상황적, 과도기적, 사회문화적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혼돈(Hoff, 1995)이라고 간주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도 탈출 전, 탈출과정 및 남한사회에서 독특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다(정병호 외, 2006).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경험 중에서 탈북과정의 외상적 사건은 남한 적응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상 사건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김순진・김환, 2000),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우에도 이주 전, 이주과정의 외상적 경험에 의해서 PTSD로 어려움을 겪는(Keyes, 2000)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의 응급상황 그 자체가 위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충족과 안정 또는 개인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각하였을 때 위기가 되는 것이다(James and Gilliland, 2001).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그들 각 개인이 경험하는 외상은 독특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습득한 학습 및 유전적 요인의 내적산물을 포함하여 동료, 가족, 직업, 종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외상 경험의 실태(백영옥, 2002; 전우택, 2004; 정병호 외, 2006)와 PTSD와의 관계(홍창형, 2004)에 대한 수량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외국의 난민연구에서도 탈출 전(前)기간과 과정에서의 외상적 경험은 민족말살정책, 고문, 고문목격, 잔학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됨, 죽음, 가족구성원의 상실, 강간, 성폭행, 기아, 고국에서의 위험한 탈출, 난민 캠프에서의 극단적 고난 등이며, 이는 PTSD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관련을 나타낸다(Chung and Bemak, 2002)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이주 과정의 외상에 대한 실태와 정신건강과의 인과성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홍창형, 2004; Bemak, et al., 2003). 즉 외상 사건의 전후관계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들여다보는 자연적 태도를 중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 경험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질적 연구(김현경, 2007)도 있으나, 외상과 관련된 인간 행위의 의도나 동기 등을 일상생활과 관련한 맥락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경험에 대한 차별적인 주관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험과학의 차원에서 객관성과 실증성을 강조하는 양적 접근으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경험을 들추어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과 상호주관성의 입장으로 들어서려는 노력을 통하여 전후관계의 상황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에 관한 초점이 북한에서 탈출준비기간의 불안과 탈출기간 동안의 기아와 가족구성원의 상실, 가족·친지의 죽음, 죽음의 위기,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문, 여성의 성폭행, 강제송환 등과 같은 외상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 각 개인들의 외상 사건은 차별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James and Gilliland, 2001),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탈출과정의 외상적 경험은 남한생활에서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전우택, 2000; 홍창형, 2004). 난민들의 경우에도 재정착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Chung and Bemak, 200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적 체험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또는 회복이라는 사실들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체험한 현상들을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의식 속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현상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상학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현상과 경험의 의미'를 찾으려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엇인가 경험한 사람들이 겪은 경험의 의미가 일상세계와 관련 지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학문이다(이남인, 2004). 사회과학으로서의 현상학적 기본입장은 관찰대상인 현상을 이해할 때 의미의 복합체인 인간의 행위 의도와 동기 등을 주관적인 전체로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은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며 개개인과 구분되어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고문, 폭력, 죽음위협 등과 같은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상황적 조건이나 정서, 사고, 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외상의 현상학적 기본이해를 위하여 사물 자체의 의미, 일상생활 세계의 의미, 언어의 기능, 의식세계의 묘사, 판단중지(epoch)의 개념(홍기형, 1997)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사물 자체의 의미'란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현상학적 관점이다. 외상 사건의 상관 및 인과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제거된 외상 체험 자체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세계의 의미'란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 경험과 남한에서의 통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미 파악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상 경험도 일상적 생활 속에서 개개인에 따라서 부여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북한이탈주민과 연구자가 상호주관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묘사해야 하며, 새로운 언어, 과장되거나 편견을 가진 언어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내면세계의 표현인 의식적 활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중요하다. '판단중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있는 그대로의 묘사를 위한 현상학적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은 주관성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대한 관찰에 있어 판단중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에 대한 선지식이나 선입견이 무엇이며, 연구주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었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외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의식적인 체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표본 추출의 적설성을 위해서 북한 탈출 후에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외상적 체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밀접지역에서 성인대상으로 탈북과정의 외상경험 척도(강성록, 2000)를 활용해서 1차 조사한 결과 15명이 적절한 대상자로 확인되었으나, 심층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4명을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 연구대상자들의 선정과정에서는 본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동의한 사람들만 참여하였다. 또한 1차 연구과정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연구참여 사례비가 제공되었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1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1시간-1시간 30분 실시한 결과 외상적 체험에 대하여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위해서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 4명을 제외한 7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통보가 아니라 연구참여자와 지속적 면담수행의 여부를 세심하게 토의한 후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7명(남: 3명, 여: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별로 최소 2회에서 최고 4회까지 진행되었다(2008년 1월 10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외상적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상

사례	성별	나이	제3국 거주기간	남한 입국일	주요 외상적 체험
1	남	35	4년	2003	* 죽음위기(신체적 질병) * 투옥에 인한 신체적, 정서적 고문
2	여	45	5년	2002	* 극도의 기아 * 투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고문 * 죽음위기(익사) * PTSD로 치료받음(남한도착 후)
3	여	34	3년	2001	* 극도의 기아 * 투옥에 의한 고문 * 신체적 질병 * 극한의 공포(공안에 대한)
4	남	47	3년	2003	* 죽음 위기(동사) * 극도의 기아 * 신체적 질병(치료 받지 못함의 공포) * 극도의 공포(탈출과정) * 중국탈출 중 총상
5	여	40	8년	2003	* 극도의 긴장의 연속(7-8년 긴장, 불안) * 가족과 생이별 * 남한에서 PTSD로 정신과 치료경험
6	여	44	3년	2002	* 죽음 위기 * 투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고문 * 극도의 공포, 불안
7	남	47	2년	2004	* 투옥에 의한 심리적 고통 * 죽음 위기 * 극도의 공포(탈출과정)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체험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콜라이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Colaizzi, Giorgi, Spiegelberg, Van Kaam, Van Manen)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생활세계에서 본질의 의미와 구조를 현상학적 기술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분한 외, 1999). 그 중 콜라이찌(Colaizzi, 1978)는 자료수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면화된 자료와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된 네 가지의 자료수집 방법 중에 마지막 두 방법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료 수집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료 수집과정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한 콜라이찌의 연구방법이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경험인 외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표현을 이끌어내고 공통 요소를 확인하고 현상과 관련이 없는 표현을 제거하고 구조적 가설을 확인하면서 경청하는 과정을 충실히 전개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콜라이찌의 분석방법은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분석과정에 의해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엄격성 평가방법

본 연구의 평가방법은 린컨과 구바(Lincoln and Guba, 1985)가 구분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의 지각과 체험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면담 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북한이탈주민과 관계하는 현장 전문가에게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는 않았다. 적용성은 연구결과를 연구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연구자와 함께 연구과정과 결과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자세히 기록하여 질적연구 전문가의 직접 참여를 통한 평가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선 이해와 가정 등을 확인하고 연구과정 내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 고찰을 지속하였다.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정신의료기관 8여년의 임상경험) 외상에 대한 선행지식 때문에 현상학적 분석의 판단중지, 차단의 엄격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엄밀성 제고방안으로 1차 자료 분석과 2차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질적 연구자 1인(교수), 정책분석 연구자 1인(교수) 및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1인(교수)과의 토론과 조언으로 개인적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병리적이고 개인내부 지향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이 이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생활에서도 외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사실을 분석과정 내내 심사숙고 하였다(이주과정의 외상만을 연구에 포함시킨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왜곡된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디자인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초기에는 특별한 질문 없이 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제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구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였으며, 연구자가 확인하고 싶은 외상만을 언급하도록 하는 유도적인 질문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이후 부터 남한도착까지의 외상과 같은 위기적 사건의 연속적 경험이 현재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어떻게 의미부여 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한 텍스트를 반복하여 되돌아가보는 심사숙고의 머무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과정의 결과, 탈출과정의 외상적 체험 자체에 대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몸부림'과 외상과 남한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살아남음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행', 칼끝의 긴장과 공포의 지속', '생존 본능에 충실', '잠재된 극단성의 미해결', '돌아오지 않는 평상심', '축소된 행동반경'과 같은 6개 주제 묶음의 발견으로 이루어졌다.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적 체험 분석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몸부림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		전후맥락	살아남음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과 일상적 삶)	
주제 묶음	주제		주제묶음	주제
생즉사 사즉생의 결행	·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고(思考)의 연속	인지	잠재된 극단성의 미해결	· 특별화의 재발견
	· 삶의 포기로 오히려 현실인식이 강해짐			· 고마움 모르는 보상심리의 재발견
칼끝의 긴장과 공포의 지속	· 일상적 삶과 불안의 동거	정서	돌아오지 않는 평상심	· 변함없는 외상적 정서
	· 극단적 긴장 속에서 정서에너지 지속 사용			· 솟아나지 않는 생명에너지
				· 응어리가 된 마음의 한
생존본능에 충실	· 동물적인 방법으로 생명유지	행동	축소된 행동반경	· 대인관계의 소극성
	· 자신만 돌봄			· 다른 사람(환경)을 신뢰할 수 없음

1)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몸부림: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

(1)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행: 인지 재구조화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과정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의 제 3국에서 극단적 기아, 질병, 투옥으로 인

한 신체적 혹은 정서적 고문,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지속과 같은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은 생사의 기로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삶과 죽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본능이 공존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생사의 문제에 항상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었다. 이는 개체가 죽음을 회피하려는 무한정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내적 고통에 직면하게 되고 불안이 극단에 이르러 현실적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들은 오히려 삶을 포기함으로써 내적 에너지의 소실과 혼란을 최소화시켜 생존적 대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생즉사 사즉생의 인지적 지각을 하였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을 감싸고 있던 공포와 불안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적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대처를 하면 살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게 됨'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결정은 외상사건의 생존과정에서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일상적 생활에서 이분법적 사고나 흑백논리의 사고패턴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항상 유용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래 열매도 먹고... 막 어떤데 가게 되면... 막... 진짜 멧돼지 털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막... 긴 털이... 완전히 센털 있잖아요. 완전히 내리 앉은 뼈... 이리 굵은 것들이... 그런것 보면 머리칼 서고 막 이리 무섭지... 근데 사람이 내가 칼날 위에 섰잖아요. 내 숨통이 왔다갔다... 하는 판이니까 그런 거 무섭다는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산에서 봐도 무서운거 몰라요...(사례2)". "중국경찰이 차를 가지고 붙들라고 막 따라오는데(중략). 붙들리는 순간에 이제는 잡히면 내가 죽는걸 뻔히 아는데 꼬쟁이를 이렇게 잡고서 나 잡을려면은 나 살은 거 못데려 간다 나 죽은걸 데려가라. 그 공안이 조선족인데 살살 얼르더라고(중략). 근데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붙들렸어요. 붙들렸는데 나는 생각이 거져 조선으로 가는 순간에는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 이랬는데 거기서 다행이도, 자네 살려 주겠네 당신 같은 악질은 처음 봤다고, 내 북한사람 많이 잡아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봤다고(사례4)". "그 다음에 물에 딱 잠기는데... 잠기는 순간 아차 내가 죽었구나. 죽었구나... 죽는 순간에도 정신이 똑똑하면 산다는데... 내가 다시 잡히더라도 살아야 한다(사례6)".

연구 참여자들이 외상적 사건의 반복에도 살아남은 이유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삶에의 강한 애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무작정으로 생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 유지를 위한 집념이 있었다. 이들은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도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벗어난 생존을 향한 처절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운만 좋다고 북한 감옥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거보다 산다... 하는 생각으로 해야... 정신만은...(사례 1)". "북한 감옥이요(중략). 여기로 말하면 짐승도 안 먹는 그런걸 죄수들한테 제공하거든요. 반찬은 아예 없고 염장무...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변한(중략). 그런데다가 쌀겨 섞인... 목에 넘길 때 아파가지고(중략). 완전 사람을 뿌리를 뽑는 거죠. 잠도 안 재우고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에 재우는데... 잘 때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편하게 앉지도 못하는(중략). 보위부 감옥에 잡히며는 6개월을 못 가서 시체로 나와야 되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견디고 다 죽어서 나가는 거지요 배고프고 춥고 막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음에 스트레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중략)

그러니까 왠만해서 오직 살아야한다는... 살아야 된다는 강인한 생각이 없으면 진짜 거기서 못 견디고 죽어 나오거든요(사례 3)". "뭐 말은 못하지요 막 이불이 없어가지고. 막 오줌을 싸면 그게 얼 정도예요. 식량이랑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중략). 초반에 기대감이 컸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끈을 안 놓게 되더라고요. 사람이(사례 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서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탈북과정의 위기가 자신의 내외부적인 대처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때라도 외부 환경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생존에 대한 열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렬한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정도의 순간에는 또 다른 생존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오직 살아야한다. 그러니까 배고픔도 못 느끼겠구요. 추운 것도 못 느끼겠구요.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중략). 그러면서 그 때는 북한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격결에 학~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막 기도라기보다는 막 간절한 막 그런게 나오더라구요(사례 3)." "무조건 살아야겠다. 무조건 살아야겠다. 무조건 신이 있다면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사례 6)".

(2) 칼끝의 긴장과 공포의 지속: 정서적 불안정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외상사건은 항상 극도의 긴장을 수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긴장의 완화 없이 연속되는 긴장과 불안은 이후에 삶의 활동성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외상사건이 만든 경직과 불안은 각 개인의 심리와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신체적 혼란과 왜곡에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이들이 탈출과정과 제 3국의 체험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심을 유지하게 하는 사건들이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의 극단적 긴장은 짧은 순간이지만 이후에 동반되는 불안과 공포의 감정은 오랜 기간 지속된다. 탈출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과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의 지속 반복은 신체적, 심리적 변형에 관계있었다.

"극도의 극도의... 진짜 최고 극도지 그런건... 가서 아를 일으켜 줄 시간도 없이 막 뛰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막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애가 일어나서 막 따라오고...(사례 2)". "완전히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고 상황이. 그러고 여기서 또 총에 맞아죽을지 잡혀죽을지 또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 죽을지 아무도 진짜 그런 상황은 사막이 그리 무섭고 겁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사례 3)". "거짓이 아니고 중국에서 3년 동안에 신발은, 신발은 벗고 잔 날이 많은데 바지를 못 벗고 잔 날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위험이 닥치고 내가 한번 잡혔을 때는(중략). 그 때 아... 여자하나가 총에 맞고 남자하나가 총에 맞았는데 저는 여기 여기 지금 여기를 이래 나갔댔는데 맞아서...(사례 4)". "뭐 말하자면 아주 그때 나도 제일 우리가 중국생활 제일 힘들었던 것이지. 남들은 다니느라고 힘들었다 그라데(중략). 그게 쭉 우리는 한동네 한집에 앉아가지고 그 칼끝까지 신경 곤두세우고 그 칼끝까지... 그게 더 힘들었던 거 같애요(사례5)". "내가 중국말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공안들이 와서 딱 묻거든, 근데 공안 딱 보는 순간 황당해 막 숨 막히고 심장이 뛰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중략). 공안이 묻는 말에 말이 거꾸로 나오고 중국 수도를 딱 물어보는데 수도도

생각이 안나요(사례 6)".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하여 남한 정착까지의 과정에서 순간적인 위기 상황을 모면하더라도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속됨을 보여 주었다. 제 3국이나 북한에서 한번 붙잡히거나, 투옥으로 인한 고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황에 있었다. 이들은 항상 신경을 '칼끝까지 곤두세우고' 살거나, 불안과 공포의 삶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이나 순간이 되면 개체를 지탱하는 울타리가 일시에 와해되었다.

"강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중국 땅에 도착을 하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악으로 정신적으로 버텨왔었는데 중국 땅에 어느 국경지대에 있는 개인집에 들어서니까 긴장이 탁 풀려가지고 바로 쓰러져...(사례 3)".

(3) 생존 본능에 충실: 비이성적 행동

연구 참여자들은 탈출과정에서 이성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생의 유지를 위한 동물적 본능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의 반복과 강렬한 인상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공안에 쫓기는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버리고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도망간 경우를 회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설명에서 어른(본인)이 붙잡히면 모두가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이유들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죄책감과 자존심 손상의 보상을 시도하였다.

"그전에 '아~ 저게 마을 경비군이구나.. 숨어야 겠다' 그 다음에 전기불이 우리를 비추자나요... 그 다음에 막 뛰는데 자식이고 뭐고 없더라고... 아니, 어느 한순간에 당황하니까 내부터 막 뛰는거예요 (중략). 엄마하면서 막 따라오는데 난 언제 아를 돌볼 시간은 없더라고 내... 돌보고 뭐고 아무튼 그 순간엔 정신은 그저 빠지는기라(사례 2)".

다른 연구 참여자는 기아상태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포장하여 자신만이 생존에 성공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도 생존한 자신이 안정적인 남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억울하고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탈출과정과 남한사회에 대한 시간의 경과와 공간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목적 달성이나 행운에 지속적으로 집착할 수도 있다.

"이제는 굶어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토끼를 하나 딱 봤어요. 3일 만에 토끼를 봤는데 땅땅얼었드라고요. 돌바위를 찾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해서 쳐서 가죽을 뜯어버리고 땅땅 얼은거를 돌에 땅땅 쳐대니까 그 살점들이 돌에 박혀서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거 주워 먹고... 그래 죽지 않아 산다 이러고 간

게...결국은 살았지요".(사례 4)

연구 참여자들은 감옥에서의 죽음 위기와 탈출과정의 불안과 공포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능이라고 직접 표현하였다. '본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삶의 방식을 이성적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기도 했다. 삶에 대한 목표와 희망도 없이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자신감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보편적 삶의 방식을 외면하는 형태를 보일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본능이라고 할 정도의 극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이들의 삶의 대처 방식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벼룩이에요. 여름철 빈대하고예 이거는 뭐 지옥도 아니고 완전히 있다 아닙니까 짐승도 그래 해놓으면 안 살 겁니다(중략). 설명하면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중략). 이걸 견디는 힘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때 까지예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사례 1)". "본능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서는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숨어 있다가 뭐 풀뜯어서 공가놓고...이렇게 70일을 산속을 걸었어요(사례 7)".

2) 살아남음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과 일상적 삶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들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외상적 사건 및 대처과정의 경험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외상적 경험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왜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의미부여 하는지와 극단적 경험에 대한 분노와 막연한 보상심리를 남한사회나 주민들에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의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들 모두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남한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의 외상적 체험은 정서적인 부분으로도 확대되어 장기간 과도한 신체적·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의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한주민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부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신들이 보이는 복잡한 현상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적 체험은 여전히 마음의 응어리로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미해결된 그들의 내재적 한(恨)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이들이 남한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들로 편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인 자존심이 높고 공격적이며, 원조에 대한 고마운 표현이 부족하고 근면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는 인식(윤여상, 2001; 정병호 외, 2006)에 대한

재조명이 있어야 한다.

(1) 잠재된 극단성의 미해결: 외상 사건으로 인한 인지부조화

① 특별화의 재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과정과 제 3국에서의 극단적 위기 경험도 극복했으니 혹은 살아남았으므로 '남한생활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양식은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유용한 개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일상적 사회생활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이 경제영역에서도 확장되어 '나는 일확천금의 획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지에서 살아왔으니까'로 연결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이 많은 것은 남한의 실정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이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새로운 정착지의 부적응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제가... 저 보고 그러는게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또 가만히 있어도예 그... 한계에 치달으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예(사례 1)".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간수들이 그러더라구요. 거기서 그렇게 견딘 사람은 역사상 내가 처음이랍니다... 하하하"(사례 3). "아... 영사관 들어갈 때 제가 또 힘들게 들어갔어요. 여자들 3명 데리고 저혼자 들어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을 때려야 되잖아요(중략). 근데 그게 잘못 알려 줘가지고, 흐흐 한국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지요. 0000년도 접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 뒤에다 여자 3명 세우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사례 4)". "처음에 와 가지고 힘들게 살아온 그... 내가 뭐 이러이러한 죽을 경험도 다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거기서 온 모든 아들이 그래 생각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어가지고...(사례 7)".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감각적 체험은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현실을 파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 삶을 살아가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체험과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다고 울부짖으며(중략), 살려달려고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깜빡 다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었는데 갑자기 한 여름에 그 더운 무더위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찬바람이 잔등을 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깨우는 그런 바람이더라구요. 너무 신기한 일이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5명이 동시에 어~ 왜 이렇게 춥냐면서 동시에 정신을 차린거죠. 우리는 다 죽었다면서 완전히 비관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싸 안은 그 인상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사례6)".

② 고마움 모르는 보상심리의 재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협했던 외상 사건이 자신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왜 자신만이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막연한 분노감과 억울함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외상적 사건에서 살아남음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어떤 형태라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한사회로 그 방향을 돌리게 된다. 이는 이들과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지역주민,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모든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이 확대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 전체가 원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는 남북주민 모두에게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의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하여 고마움 모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 자체가 원래 고마운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났던 너무나도 괴롭게 살았던... 그게 풀려야 하는데 그니까 그걸 못 푸니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사례 1)". "그 배신감이라는게 있다 아닙니까. 이게 뼈져리게 몸에 배겼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를 처음에 못 느낍니다(사례 4)". "과거의 충격이... 고마운 것을 모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사례 7)".

한 연구 참여자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였다고 회상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 정착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전 대책이 필요 없었으며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한국도착 이후에도 삶이 지속된다는 실존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위기상황에서는 없었다. 이러한 준비 부족은 적응의 문제와 관련이 되며 장기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희망, 좌절, 고립, 도피적 행동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 한국행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남한 정착과정에서 그러한 막연한 희망이 현실과 밀접히 관계되어야 한다고 믿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는 남한의 전문가들과 일반주민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뭐 혹시나 우리는 행여나 뭐 한국 가는 길이 그때 한국만 오면 뭐 지상천국에 오는 줄 알았지요(사례 5)".

(2) 돌아오지 않는 평상심: 외상 사건에 지속되는 정서

① 변함없는 외상적 정서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적 사건의 체험은 그 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서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되살아남을 알 수 있었다. 외상 경험은 유사한 체험에 대한 놀람이나 거부반응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되는 악몽도 삶을 힘들게 하였다. 악몽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면과도 관계가 되며 이는 일상적 생활에서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감옥에서의 고통, 탈출과정의 긴장, 남한행의 목적 달성에 대한 초조감 등이 반복적으로 악몽이 되어서 나타났

다. 이러한 악몽의 반복은 불면을 가져오게 되고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한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내적 고통을 말한다.

"한 3년까지는 북한에 있는 꿈을 계속 꾸대요. 아... 괴롭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내 요와 있는데... 와 빨리 한국가야 되는데 갈라하는데 안 가지거든예... 누가 또 따라오고...(사례 1)". "한국에 오자마자 한 3-4년은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TV를 보면서 아무리 잠자볼려고 별에 별 그걸 다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술 한 잔 마시면서 해도.. 수면제를 먹어봐도 잠이 안 오고 밤새 그냥 새벽 6시까지...(사례 2)". "그게 8년은 가더라구요(중략). 아침에 눈뜨고 밤새도록 눈만 감으면은 악몽에 시달리거든요. 철조망에서 막 빠져 나올라고 하는... 뭐 깊은 구렁텅이에서 이리 헤메고 저리 헤메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사례3)". "잠은 정말 힘듭니다. 그게... TV를 보고 있어도 그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생활이 그 TV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사례 4)".

② 솟아나지 않는 생명 에너지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적 체험은 개체로 하여금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경직성을 가지게 하였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남한 정착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단지 사는 이유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목적 없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살아가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공중에 붕 뜬것 같은 삶'을 설명하며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지 않아서 기본적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를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공황장애와 같은 경험, 아침에 눈을 뜨고도 수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보통 수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 수단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기도 하였다. 인간에게 에너지의 지속적 소진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여 삶을 포기하는 죽음소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견고하던 부부관계가 남한에 도착해서는 그 울타리가 해체되면서 이혼하게 되었음을 토로하였다(사례 5). 중국에서 수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부여했던 부부밀착의 에너지가 더 이상 유지되거나 생성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이었다. 이러한 에너지 소진의 경험은 외상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속되었다. 이들의 새로운 경험은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를 통하여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직간접의 외부환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이 회복의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 개입전략과 외부 환경의 원조와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어요(중략). 기가 빠져나가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든가(중략). 기가 너무 빠져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는 과정이 하여튼 2시간이 걸릴 정도로 못 일어나는 거 있죠(사례3)".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어쩌면 두 번이나 겪었으니까, 이제는 죽는게 겁이 안 나더라구요(중략). 오히려 죽은면은 속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은 나죠(사례 4)". "뭐 기운을 못 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5년이 되니까 이제

좀 낫네요. 처음에 한 3-4년 3-4년 될 때가지는 여름에 걸어 다니지를 못했어요(중략). 그 혹시 모 뭐가 뭔지 항상 어지럽고 막 사람이 막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도 쫌...(사례5)". "난 난 지금도... 난 지금도 그래요 그게 습관적인지 내가 너무 고달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난 진짜 죽음이라는게 눈깜짝 새에 깜빡 죽어버린다면 난 이순간 죽어도 행복하겠다(사례6)".

③ 응어리가 된 마음의 한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논리적이고 정서적인 미해결은 마음의 악, 짜증, 분노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배려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 이외에 타인을 돌볼 여유가 없으며, 탈출과정의 삶을 짐승 같은 야생생활, 유목생활, 배신의 연속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장기간 마음속에 간직되어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이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외상을 체험하였던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일상적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풀어 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지니게 하거나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내면화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 남한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한다면 부적응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악한... 이 야생짐승처럼.. 어찌 보면 야생이지요 야생생활 하다시피 했으니까 막...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게 악으로.. 그기 풀려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풀리지...(사례 1)". "세상만사 힘들게 사는 거지 나는 툭 떨쳐놓고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버려가지고 신경적인거야 뭐 남하고 나눌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몸에 베여가지고 혼자 부둥켜 앉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대가지고 한 이삼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서...(사례5)". "하루도 술 안빼적 없고... 술 먹으면 울고 주로 화풀이 해보고... 빌라에 살았는데 꼭대기에서 죽으려고 내려다보니, 애들이 뒤에서 엄마 부르는 것 같고(사례 6)".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변화되었던 그게 들어갔다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사례 7)".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내재된 마음의 한을 외부로 왜곡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극단적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행동방식과 혼합되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또는 공동체의 규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상 경험이 미해결 된 상태로 짜증, 분노 폭발과 같은 정서적 대처를 주로 하였다. 이들은 삶과 죽음, 적응과 포기, 목적과 방황 사이에서 방향성의 상실과 양극단의 감정과 행동 및 사고 속에서 갈등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의 경과와 개인적 인식능력의 향상으로 왜곡이 수정되기도 하지만, 정착초기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남한생활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로... 과거에 느꼈던...(중략) 악으로 조금만 누가 뭐라해도 짜증나고 확 성질이 나고...누가 뭐라해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제가 느끼기에 북한 사람들 처음 오면 대부분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과거에는 느꼈던게 지 좋을대로... 과거에 겪었던게 그게 한으로 남아가지고(사례 4)". "그게 또 일이 안되면 바로 성질이 나고(중략) 이거 하나 건드리면 경찰이고 뭐고 그냥, 니 죽든지 내죽든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진짜 성격도 있다 아닙니까... 되게 이상해지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처럼(사례 7)".

(3) 축소된 행동반경: 외상 사건에서 변화된 행동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 사건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이들의 체험은 감옥에서의 고문, 공안으로 부터의 쫓김, 제 3국에서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 탈출과정의 긴장과 같은 타인이 공포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지속적인 배신으로 인한 외상적 체험은 의심증을 나타내게 되고, 이는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고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체득한 '우리끼리 살자 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는 남한문화에 적응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한 연구 참여자가 '약간의 허점을 보이는 순간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고백은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완벽성의 추구는 장점도 있지만 경직성과 융통성이 떨어지며 사회생활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 전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래 곁에 사람 두기를 좋아했어요(중략). 지금은 사람 끌기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요. 그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회사생활하기도 싫고 무리 속에 들기도 싫고(사례 2)". "처음에 2년 동안은 한국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를 싫어 했어요(중략). 처음에 2년 동안은 주로 북한사람과만 대상하고...(사례4)". "웬만하면 완벽을 추구하고 그래요. 약간 허점을 보이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약간만 뭐가 어째도 무서운 일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치게 해요(사례 5)".

이들의 대인관계 위축과 고립양상이 거주지 설정에서도 나타났다. 인간과 관련된 위기상황의 경험은 거주지도 중심지가 아닌 주변을 택하게 하고 항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아는 거는 서울, 부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운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해안쪽으로 가자고.. 일단 지방에 가서 조용한데 가서 왠지 두려움 같은게 있더라구요(사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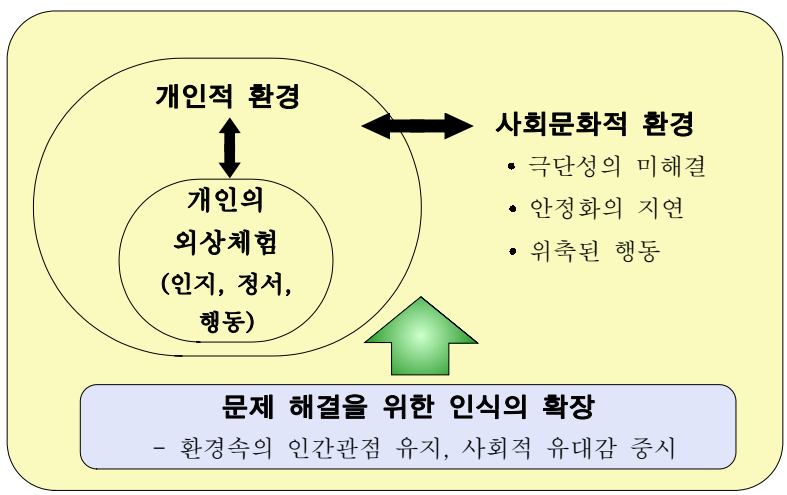
외상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립을 자처하고 편집증적 사고의 외톨이로 산다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직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충격적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시간의 경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그 혼합이 되야한다 아닙니까... 여기 사

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 아닙니까(사례 1)". "충격적인... 일단 그런 걸 빨리 잊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을 많이 접촉하고(사례 3)".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신체적·심리적 고문, 기아, 치료받지 못한 심각한 신체적 질병, 투옥 또는 죽음의 공포, 심각한 폭행, 극단적 긴장의 지속 등과 같은 외상은 수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그 체험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외상 사건에서 살아남은 과정에서 각인된 이미지와 기억은 수 년 동안 지속되어 현재 삶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확장해야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조사된 것을 조합하거나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남한주민들과 함께 같은 환경(세계) 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을 극복하여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객체화하여 개입·치료 또는 적응시키려는 시도들을 반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참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과 일상적 삶

북한이탈주민들과 유사한 체험을 하는 난민 연구에서도 외상의 실태와 그 결과인 PTSD에 집중되고 있다(Keyes, 2000).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적 방어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지만 내적인 큰 비용을 치루게 된다(Kalshed, 1996). 외상이 표면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심리내면에

서의 갈등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면 탈북과정의 외상이 내적세계에만 관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의 맥락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 사건에서 경험한 분노와 공격성을 자신에게도 향하지만 타인에게도 적대감을 표현하였다. 외상은 존재감을 상실하게 하고 자아의 계속성을 좌절시키기 때문에(Winnicott, 1971) 외부환경과 관계를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개인적 힘을 상실하게 한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도 남한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고립된 생활은 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인간은 외상과 같은 극단적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내적인 분노와 함께 그 체험에 대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자신에게 요구하게 된다(Alcock, 2003).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면 분노의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 표출이 나타나게 되고 점차로 그러한 연유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를 피할 수가 없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겪은 외상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나타내는 부적절함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적응은 북한이탈주민들이기에 나타나는 전체성이 아니라 인간의 특별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사건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그 영향은 남한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도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외상으로 인한 심리내적인 정서적 고통의 지속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적절한 대처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외상 사건의 연속적 경험을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였는데, 남한주민들과 관계에서 짜증, 분노폭발과 같은 정서적 대처를 하거나 논리적 상황대처가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상실된 양극단의 감정과 행동을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고통스런 경험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보상받을 방법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남한사회 전체 또는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대인관계에서 외상을 보상받거나 이해받고 싶은 태도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나 주민들의 원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한 보상심리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외상적 경험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간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 불안하게 된다. 그 불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부정(denial)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외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사후가설적 논리로[1] 그 현상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행동패턴이 반복된다면 사회의 일상적 생활양식과 괴리를 가지게 되어서 사회생활의 보편적 행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립을 초래하게 되고 남한주민들과 합리적이지 않은 상호관계의 양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 외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들과의 혼합을 강조한 이유가 이를 뒷받침하게 된

1)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직접 인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 노인네들이 일단 묘지갔다 돌아올 때 돌아보지 말라하더래요(중략). 그렇게 딱 돌아보고 싶대요. 어느 한순간에 저도 모르게 딱 돌아섰대요(사례 2)”의 표현이후에 자신의 악몽의 이유와 불면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양로원에 열흘인가를 숨어있는데(중략), 그날 아침이 기분이 참 묘하더라구요. 그날 아침 먹는데 기분이 영묘하드라고요(사례 4)”의 표현 이후에 중국 공안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사후가설적 논리 유지하였다.

다.

외상 사건에서의 생존은 성장의 변화와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는데(Schiraldi, 2000)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고통은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야 점차로 감소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몽의 연속, 불면, 무기력감, 의지와 상관없는 외상의 침투, 우울, 이유 없는 분노, 집중곤란 등과 같은 PTSD의 주요증상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외상적 체험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내 절로 아프고 내 절로 다듬고 그래야 되네, 그 과정이 버겁지요(사례 2)'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체험을 스스로 다루어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가치유의 일환으로 자신이 경험한 위기적 사건의 잠재적 동반자인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2] 이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의 고통과 죄책감의 일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가치유 기간을 기다려 주고,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주난민들은 직업의 하향 이동, 역할 변화, 문화적응의 문제 및 사회소수자의 지위 획득으로 인하여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다(Ben-Porath, 1991). 이러한 손상은 외부 표현에서는 더욱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정병호 외, 2006).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존심과 관련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를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첨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외상 상황에서 동물적 본능의 상태로 남겨진 자신을 목격하게 되었다. 극단적 위기의 순간에는 자식에 대한 애착, 타인에 대한 배려, 인간으로서의 의식주 행위 등을 포기하고 오로지 생을 유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에서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사회소수자의 지위에 대한 열등감이 공존하면서 과거 외상 사건에서 동물적 본능의 노출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감이 심리내면에 축적되었다. 이렇게 내재된 자존심의 손상요인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반동형성으로 더욱 강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된 외상 체험에 대한 막연한 보상심리와 에너지의 소진에 의한 지지적 관계에 대한 표현력까지 부족한 채로 외부환경과 관계한다면, 원조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사람들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상호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다(전병호 외, 2006).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사람과 관련하여 위기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남한 적응 초기에는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소극적인 관계형성이 외상적 사건의 배경 탓으로만 돌려질 수는 없지만 관련요인임을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외상을 경험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 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으

2) "그 정신 상태가 세뇌화되어 가지고(중략),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주고(중략), 아무리 형제들에게 그 매일 차도 타고 다니고 좀 부풀려서 이야기해도 모르고, 다 죽어야 합니다(사례 1)". "계속 거기 생각이 사실상 거기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중략). 아직도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깐 지금도 생각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어야 되겠다(중략). 제가 이번에 또 이 사람들(중국에서 북한사람)을 만나봤지만, 제 주머니돈을 다 털어서 줬어요(사례 4)". "제가 다 죽어라 다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도 머리가 안돌고 어떻게 사냐고 다죽어라고... 나는 이밥에 돼지고기도 먹기 싫어서 안먹는 사람이고...(사례 7)".

며 실제로 타인과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교제를 하였다. 개인들이 심리적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내부로 향할 경우에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부영 외역, 1983).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게 하는 개입방법과[3] 대인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자체뿐만 아니라 외상의 대처기제도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극단적 생존과정에서 유용하였던 대처기제가 남한의 일상적 삶에서는 오히려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탈북과정의 위기적 사건에서는 '죽기살기식'의 대처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것이 일상적 삶에서 항상 유용한 기제가 되지는 않았다. 한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듯이 '깡으로는 절대 안됩니다(중략). 이... 이런 사회는 대인관계가 첫째다 아닙니까. 니는 니고 내는 내고 이래 가르면 절대로 한국사회에서 적응 못해...(사례 1)'라는 표현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흑백 논리에 의해서 사물들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탈북과정의 외상 과정은 죽음 아니면 삶의 선택적 상황을 요구 받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틀로 인지가 재구성된다면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지(死地)에서의 생존은 남한생활을 손쉽게 생각하여 공간이 다른 곳에서의 적응이 달라야 함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극단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상 사건의 대처에서 '니죽든지, 내죽든지'의 결단이 재구조화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들은 희망과 좌절,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를 반복하는 양가적 감정 속에서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의 외상 사건에 대한 대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외상 과정에서 나타난 극적인 결정, 살아남기 위한 임기응변, 의심하고 움츠린 선택 및 긴장 속에서의 공격적 자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적 선택이 외상 사건 당시에는 유용한 생존의 도구가 될 수 있었으나 남한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부적절한 관계양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어느 정도의 불신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 체험은 수년이 경과된 남한생활에서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단지 개인의 정서적인 고통의 지속만이 아니라 남한생활에서의 왜곡된 표현과 대처 및 세상을 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상황적 고려를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남한사람들이 일정부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간의 의미 없는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이라는 사실들도 환경과 인간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편적 현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체험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면서 부가적인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3)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 외상 체험의 내적 고통과 분노에 대한 '화풀이' 또는 '한풀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화풀이와 한풀이를 통하여 개인의 내적 에너지를 외부로 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화풀이와 한풀이의 방법은 개인적으로 다양하며 신체 활동, 의도적 에너지 표출, 명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마음의 한을 풀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실천적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외상 사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자신들만이 이러한 체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와 원한이 마음에 쌓이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면 긴장과 불안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의식하는 경직되고 왜곡된 인지적 바탕 속에 삶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한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남한에서의 일상활동이 갈등 속에서 지속될 수도 있다. 둘째, 남한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남한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대처방식이 외상과 같은 극단적 경험에 기인하여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남한주민들은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독특성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관용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외상경험이 지속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장기와 단기 외상 체험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장기간의 외상 체험은 탈출과정의 공포, 체포의 불안, 투옥에서의 죽음 위기 등 이었고, 단기의 극단적 체험은 기아, 총상,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생사를 건 탈출, 익사 순간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 외상 체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으며, 단기 극단적 체험은 그 이미지가 이후에도 영속되면서 개인마다 다양하게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사건의 양적인 수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개입에서는 수량화된 접근보다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의미 하는 정도를 상세하게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탈출과정의 제 3국에서 경험하는 외상적 경험은 그 당시의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성록. 2000. “탈북자의 외상척도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분한 · 김금자 · 박인숙 · 이금재 · 김진경 · 홍정주 · 이미향 · 김영희 · 유인영 ·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Giorige,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028-1220.

김순진 · 김환. 200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 학지사.

김현아 · 전명남. 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혜숙. 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백영옥. 2002. “중국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241-264.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04.『질적연구방법론』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엄태완. 2005.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정신건강전략: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주민, 일반주민의 비교를 통하여".『통일정책연구』14(1): 297-324.

윤여상. 2001.『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도서출판 세명.

이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동원전략: 부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55: 103-130.

이금순 · 김규륜 · 김영윤 · 안혜영 · 윤여상. 2005.『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이남인. 2004.『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부영 역, 1983.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C. G. Jung, 1964. *Man and His Symbols.* 서울: 집문당.

전우택. 2000.『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_____. 2004. "남한 내 탈북자들의 3년 추적조사".『다가서는 남과 북, 만남과 공존의 모색』. 남북문화통합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양대 민족학연구센터.

정병호 · 전우택 · 정진경. 2006.『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조영아 · 전우택 · 유정자 · 엄지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 예측요인: 3년 추적연구".『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17(2): 467-484.

조정아 · 임순희 · 정진경. 2006.『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서울: 한학 문화.

홍기형. 1997. "질적 접근으로서의 현상학적 연구방법".『한국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12: 23-38

홍창형. 200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통일부. 2008. 내부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

Alcock, M., 2003. "Refugee Trauma-the Assault on Meaning." *Psychodynamic Practice* 9.3 291-306.

Bemak, F., Chung, R. and P. Pedersen, 2003. *Counseling Refugees: A Psychosocial Approach to Innovative Multicultural Interventions.* Connecticut: Greenwood Press.

Ben-David, A. and Y. Lavee, 1994. "Migration and marital distress: The case of Soviet immigrna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33-146.

Chung, R. C.-Y. 2001. "Psychosocial Adjustment of Cambodian Refugee Women: Implic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2): 115-126.

Chung, R. C.-Y. and F. Bemak, 2002.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11-119.

Cola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 York: Oxford Univerity press.

Egli, E. A., Shiota, N. K., Ben-Porath, Y. S., and J. N. Butcher, 1991.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J. Westermeyer, C. L. Williams, and A. N. Nguyen, eds.,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off, L. A. 1995. *People in Crisi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James R. K. and B. E. Gilliland,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CA: Brooks/Cole.

Kalshed, D. 1996. *The Inner World of Trauma.* London: Routledge.

Keyes, E. F. 2000. "Mental health status refugees: An integrative review of current research." *Issues*

in Mental Nursing 21: 397-410.

Lincoln, Y. and E. Guba. 1985.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 65-172.

Potocky-Tripodi, M. 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Schiraldi, G. R. 2000.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LA: Lowell House.

Winnicott, D. 1971. *Playing and Realit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raumatic Experience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Eom, Tae-Wan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trauma accident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d while escaping from North Korea. We approached with phenomenological method, and the study targets were 7 North Korean Defectors who underwent trauma such as torture, fear, violence, starvation and disease in the cours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trauma of participants is linked to the present after years while categorizing 6 theme clusters into 'struggle in the border of life and death', and 'difference between being left alive and living'. The image and memory imprinted in the mind of participants from the trauma accident has continued for years and is related with their daily life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could realize that some elements which had been thought to be negative featur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unavoidable extraordinary nature of people who experienced trauma.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Trauma, Phenomenological Method

[논문 접수일 : 2008년 12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3월 10일]